


**장애인을 위한 곳이
맞을까요?**

보통 사람들이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
도움을 주려고 한다.
도움을 주려는 건 좋지만 장애인들의
인권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. 하지만
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
혼자 살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
필요해 함께 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에
사는 사람들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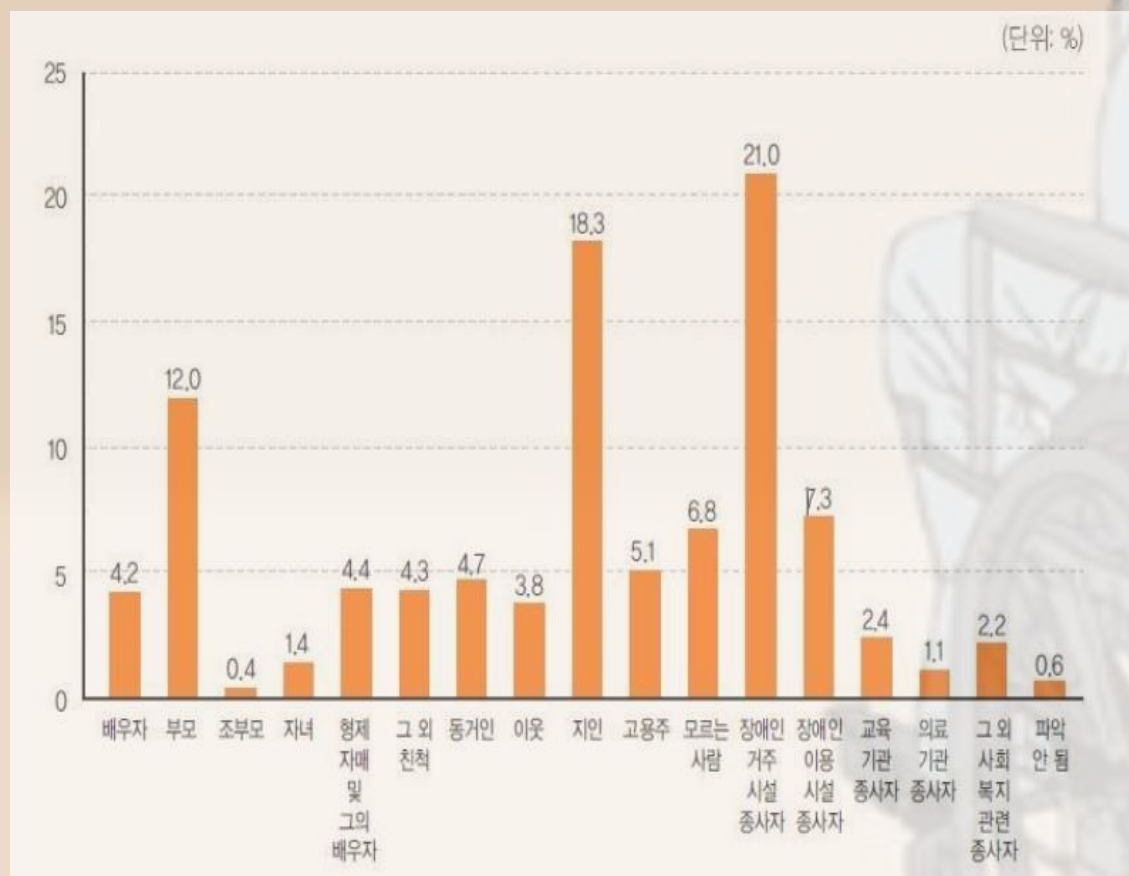
Q.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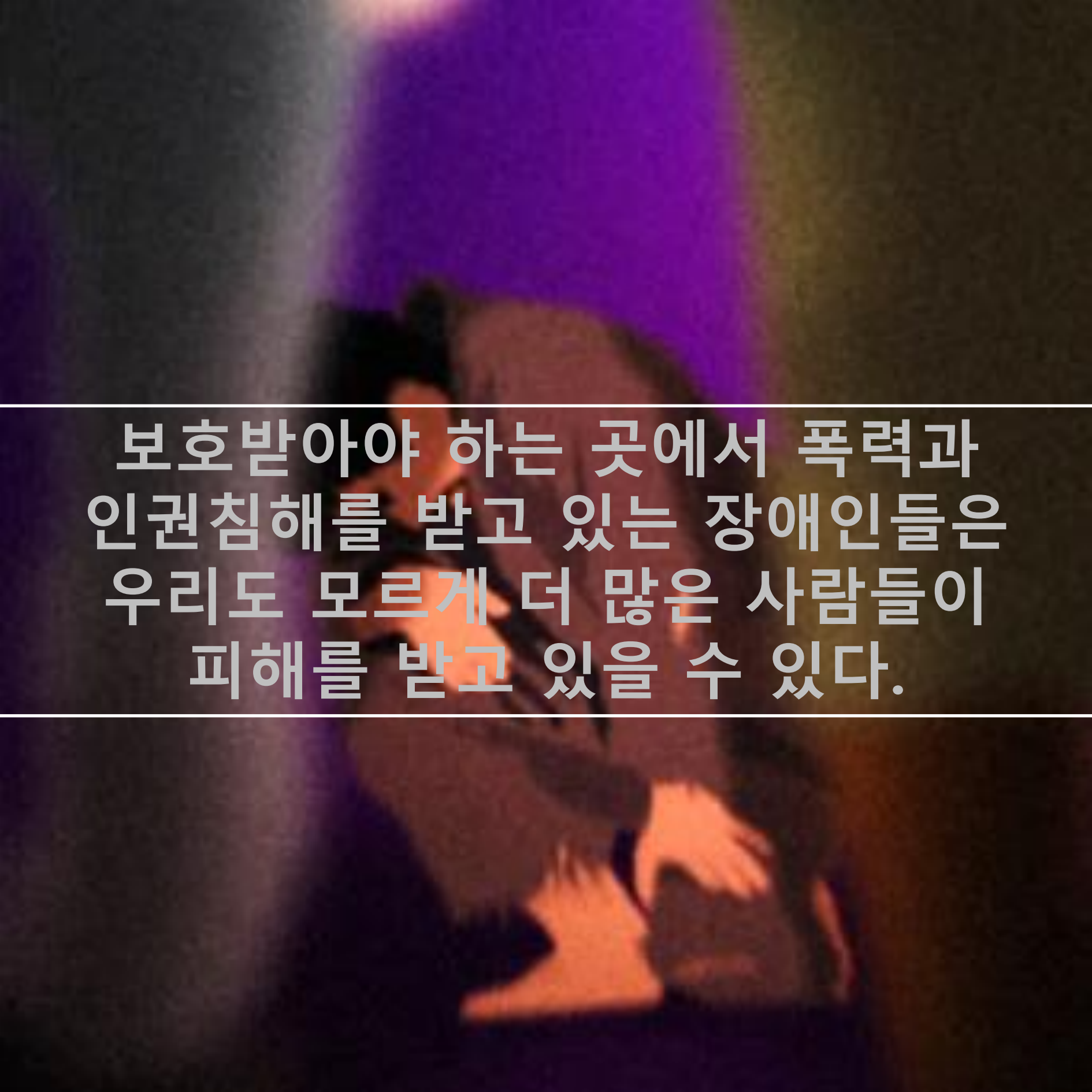
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은
인권을 보호받고 있나?

-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23명을 무려 5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
- 센터 사람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사건
- 복지시설 원장이 중증 정신장애인 16명을 성추행·폭행한 사건



[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]

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.



보호받아야 하는 곳에서 폭력과
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
우리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
피해를 받고 있을 수 있다.

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? ”



우리

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며 공부해야 한다.
기사로도 찾아보고 따로 직접 찾아가 봉사하며
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.

사회



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
하게끔 한다. 또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욱
강화 시킨다.



서로 존중하면서 사람답게 살며 모두가 소중하다고
여기는 사회가 오기를

TOGETHER

